

고산 윤선도 東詩 「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 고찰

임귀남*

차 례

1. 서론
2. 조선 시대『시경』「육아」의 수용과 孤山 문학
 - 2.1. 조선 시대『시경』「육아」의 수용 양상
 - 2.2. 孤山 문학 속 『시경』「육아」
3. 東詩「문인폐육아」의 분석적 이해
 - 3.1. 「문인폐육아」 내용과 시적 형상화
 - 3.2. 「문인폐육아」 내용상 · 형식상의 특징
4. 결론

| 국문초록 |

東詩는 科體詩, 行詩, 功令詩, 東人詩 등으로 불리는데 애초 과거시험용 답안으로 창작되다가 과체시를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한 우리나라만의 특유의 詩體이다.

본 논문은 17세기 전반 시조 시가 東詩 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고산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東詩 「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먼저 조선 시대 문집에 실린 『시경』 「육아」를 수용한 작품들을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눈다. 그리고 각각 그 시기의 수용 양상을 고찰한다. 이어 윤선도의 한시 속에는 『시경』 「육아」 편이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었는지, 그의 작품에 실현된 『시경』의 표현기법과 한시의 대구 기법을 위주로 살펴본다. 특히 그의 東詩 「문인폐육아」 속에 투영된 왕부의 ‘폐육아(廢蓼莪)」 고사가 어떻게 시로 형상화가 되었으며 그 정도를 내용 분석과 함께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작품의 내외적인 특징을 종합·정리하여 효행 문학사에서 윤선도 작품은 어떠한 의미를 점하는지 논증한다.

핵심어 : 동시(東詩), 과체시(科體詩), 고산 윤선도(尹善道), 「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 『시경(詩經)」

*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학과 대학원 박사수료.

폐육아(廢蓼莪).

1. 서론

본 논문에서 고찰할 윤선도의 東詩 「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라는 시제(詩題)는 문인들이 『시경』 「육아」 편을 덮고 읽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東詩는 윤선도가 25세(1611, 광해 3)에 지은 작품으로, 『진서(晉書)』 권88 「열전(列傳)」 제58 효우전(孝友傳) 왕부(王裒)¹⁾의 이야기를 뽑아 『소학』 「선행(善行)」 제62)에 실어놓은 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목으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孝에 관한 문헌상 최초 기록 중의 하나인, 『시경』 「육아」 편을 인용한 진(晉)나라 효자 왕부의 이야기를 작품의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윤선도의 東詩 주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효의 실천에 대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였다.

유교적 질서를 추구하는 조선 사회에서 충과 효는 하나의 보편적이었지 특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 가운데 효는 체제의 원리로 적용되고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으로 통용되었으며 이념상 충보다 우선시 되어 왔다. 윤선도는 여러 작품을 통해 당대의 보편적 인식인 이러한 유교 이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작가이다. 그의 대표작 「견회요(遣懷謠)」를³⁾ 보면, 당쟁으로 인해 수차례 유배 생활을 했음에도 효 사상을 끝끝내 강조했던 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효를 실천할 수 없는 현실적 처지와 효를 지극히 해야 한다는 이상적 괴리 사이에서 오는 슬픔과 그러한 그리움에 천착하는 모습이었다. 그 과정에서 윤선도는 동시대 많은 문인이 인용했던 『시경』 「육아」 편을 수용하여 효 의식을

1) 『晉書』【四部備要】 史部, 臺灣中華書局, 中華民國 70年 6月, 列傳 第54, 88, 3쪽.

2) 『小學』, 學民出版社, 1990, 497쪽.

3) 孤山은 30세 丙辰(1616, 광해8) 12월 31일 당시의 권신 이이첨(李爾瞻)을 탄핵하는 「병진소(丙辰疎)」를 올렸다가 절도(絶島)에 안치(安置)를 받고 함경도 경원(慶源)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32세(1618, 광해10) 겨울 경상도 기장(機張)으로 이배(移配)되었는데, 이 견회요(遣懷謠) 가사(歌辭) 5수는 경원 유배지에서 지었다. 『孤山遺稿』 卷 6下 別集, 986쪽.

드러내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고산 문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조와 같은 국문 시기에만 한정되어 있었을 뿐, 상대적으로 그의 한시는 학계에서 주목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한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급기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윤선도에 관한 관심이 다채롭게 진행되어 많은 진척을 보게 되었다.⁴⁾

이에 힘입어 김대현은 2003년 해남(海南) 녹우당(綠雨堂) 종가(宗家)의 전적 자료 조사 과정⁵⁾에서 『사고(私稿)』라고 적혀 있는 윤선도의 東詩 필사본을 발견하였는데 그 속에서 行·草書로 쓴 친필 東詩 200여 수가 실려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 작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재 東詩가 남아 있는 분량이 매우 방대하고, 그 한시의 형식이 중국과 다른 우리만의 고유한 형식이기에 때문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⁶⁾ 또한 19세기 대표적인 東詩 작가가 김삿갓으로 널리 알려진 김병연(金炳淵, 1807~1863)이라면, 17세기의 東詩 작가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윤선도일 것이라고도 하였다.⁷⁾

이런 일련의 연구 성과는 기존 윤선도의 작품에 대한 학계의 인식 전반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면모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고산유고』에 選詩된 東詩 8수⁸⁾ 중 「전당춘망(錢塘春望)」은 중국의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전당강(錢塘江)의 역사적 고사와 항주(杭州)의 봄을 아름답게 그린 18운 36구의 東詩이다. 그는 이 시로 1606년(丙午 선조39) 20세에 승보시(陞補試)에 장원급제했다. 또 1612년(壬子 광해4) 26세에는 항주(杭州) 서호(西湖)의 宋代 시인 임포(林逋⁹⁾)와 고산(孤山)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25운 50구

4) 박종우, 「고산 한시의 공간과 미적 특질」, 2015, 7쪽.

5) 김대현, 「녹우당 소장 한문학 자료의 검토」, 『해남 녹우당의 고문헌』, 태학사, 2003.

6) 김대현, 「고산 윤선도 漢詩의 자료학적 고찰」, 『古詩歌 研究』 제32집, 2009, 8~9쪽.

7) 김대현, 위의 논문, 18쪽.

8) “인간독사각군신(人間讀史各君臣), 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 수(愁), 전당춘망(錢塘春望), 청풍명월불용일전매(淸風明月不用一錢買), 모설방고산(冒雪訪孤山), 가구소어거(家具小於車), 객심세류수(客心洗流水). 이 東詩 8수는 윤선도 『사고(私稿)』 시 東詩 필사본에 실려 있는 200여 수 속에 포함되어 있다.

9) 임포(林逋, 967~1028)는 和靖으로 宋代의 은일 시인이다. 일생 동안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杭州의 孤山에서 은거하면서 鶴 두 마리를 길러, 梅妻學子로 불렸으며 鶴으로 손님이

의 東詩「모설방고산(冒雪訪孤山)」을 지어 그해 봄 진사시에 합격했다. 이처럼 25운 50구라는 장편 형식으로도 과시에 입격한 작품이 되었다는 것은 17세기 초 1610년대의 과시 형식이 조선 후기보다 자유로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¹⁰⁾

본 논문은 윤선도의 東詩『문인폐육아』를 고찰하기에 앞서 조선시대 『시경』 「육아」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조선 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별하여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17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東詩 작가인 고산 윤선도의 『고산유고』권 6상에 실려 있는 東詩 8수 가운데 한 수인 「문인폐육아」의 내용과 작가 윤선도의 효 의식을 분석하여 작품의 내용상 형식상의 특징과 함께 효행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 『시경』 「육아」 편의 수용과 고산 문학

2.1. 조선시대 『시경』 「육아」 편의 수용

이 장은 효에 관한 문헌상 최초 기록 중의 하나인 『시경』 「육아」 편이 조선시대 문집에 수용되고 과체시의 답안이 되기까지의 양상을 『中國經學史』를 중심으로 『毛詩序』의 해석과 정현(鄭玄)의 『전(箋)』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문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경』 「육아」 편의 주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으로 최초의 설명인 『시경』 「毛詩序」에서, “「육아」는 幽王을 풍자한 시다. 백성들이 수고롭고 힘들어 효자가 부모를 끝내 봉양하지 못한 것이다. [蓼莪, 刺幽王也. 民人勞苦, 孝子不得終養爾].”라고 풀이하였다. 이에 대해 後漢의 정현은 『箋』에서,

온 것을 알았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10) 김대현, 「『孤山遺稿』 卷六 所載 東詩 「冒雪訪孤山」 考察, 『漢文學報』, 2008. 376쪽.

“봉양을 끝까지 하지 못한 것은 양친이 병환으로 돌아가실 당시 부역에 나가 있어서 임종을 못한 것이다[不得終養者, 二親病亡之時, 時在役所, 不得見也].”

라고 풀이하였다.¹¹⁾

그러나 본고에서 고찰한 東詩 「문인폐육아」와 관련된 故事인 짚나라 왕부의 이야기는 행역(行役)의 상황과 무관하다. 왕부가 「육아」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행역 나간 효자의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상관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통함 때문이다. 그래서 후대에 「육아」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왕부가 「육아」를 읽으며 울었다는 사실에만 관심 있지 행역 나간 효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¹²⁾

「육아」 편이 효에 관한 시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면서 후대의 유생들은 효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이 「육아」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다. 『진서』와 『소학』 모두를 수용한 왕부의 고사는 윤선도 東詩 「문인폐육아」의 배경이 되는데 사람들에게 효를 권장하는 한편 스승을 존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권장하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고려 말 주자학을 수용한 시기에 『소학』이 전래되고 이후 15세기 말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정치세력이 등장하면서 己卯土禍 이후 한때 『소학』은 금서(禁書)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조선 초에는 과거시험 과목 중 하나가 되었다.¹³⁾

“윤선도는 일찍이 옛 책들을 보다 『소학』을 읽고 기뻐하며 사람이 되는 모범이 모두 여기 있구나 하고 이 공부에 전념하였다. 자기에게 절실하고 내면에 가까운 공부를 하며 오로지 자세히 연구·침잠하고 탐색·반복하기를 여러 해 수백 번을 읽었다.”¹⁴⁾라고 할 정도였다.

11) 孔穎達, 『詩經注疏』, 『十三經注疏』2, 臺灣, 臺北, 藍燈文化圖書公司, 436쪽 참조.

12) 강미정, 「『시경(詩經)』 「육아(蓼莪)」와 관련된 영조의 심리적 특성과 문학 치료적 의의」, 『고전문학과 교육』 7,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03, 41쪽.

13) 윤인숙, 「『小學』의 성격과 정치론, 그 적용」, - 조선 전기 사람과의 정치이론과 적용 - 『사림』 제35호, 2010, 135쪽.

조선시대 문집에는 「육아」 편을 인용한 작품들이 많다. 이 장에서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후기로 나누어 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만, 작가와 작품의 당대(當代) 대표성 여부보다는 「육아」가 인용되는 작품의 내용적인 상황과 형식적인 구조에 그 논의를 집중하였다.

먼저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작품이다.¹⁵⁾

上略-

伊子早喪親	이 몸이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서
寒暑驚節變	한서가 바뀔 때면 문득문득 놀란답니다.
無復膝下嬉	슬하에 부모님 모시던 즐거움은 간 데 없는데
尙餘手中線	어머니가 지어주신 옷만은 아직도 남아 있군요.
養生亦何及	이제와 봉양하고 싶어도 봉양할 수 없으니
遺體當自持	남겨주신 이 몸이나 잘 보살피렵니다. ¹⁶⁾
三復蓼莪篇	세 번을 반복해 「육아」 편을 읽고 나니
涕淚空漣漣	부질없이 눈물만 줄줄 흐른답니다.

下略-

<영회봉정호정대인(詠懷奉呈浩亭大人)> 중

연수(聯數)·자수(字數)·평측(平仄)에 구애되지 않는 전형적인 고체시 형태의 시이다. 「육아」의 인용 또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형상화 시키는 도구로 적용했다. 原詩의 핵심 단어는 충성과 효도인데 발췌한 부분은 효를 시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다.

다음은 허균(許筠 1569~1618)의 작품이다.

14) 『孤山遺稿』附錄 諡狀, 1014쪽. “公嘗點檢舊帙 得是書讀之喜曰 ‘做人樣子 盡在於此’ 遂專攻之 從事於切己近裏之學 一意研精 沈潛玩索 反復數年 讀至數百遍”

15) 卞季良, 『春亭先生詩集』卷四.

16) “身體髮膚 受于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古文孝經』第一章 「開宗明義」. 孔子의 이 명언은 『四字小學』, 『擊蒙要訣』, 『近思錄集解』, 『小學』 등에서 많이 인용되었다.

上略-

堂名懷遠亦何義
風樹餘哀茹未吐
綵衣無復戲庭前
西望松楸隔煙霧
牀頭空掩蓼莪詩
含愴春秋履霜露

회원이란 당 이름 또한 무슨 뜻인가
풍수의 남은 슬픔 헤아려 펼 수 없도다.
색동옷 입고 다시는 뜰 앞에서 놀이 할 수 없는데
안개 너머 부모님 산소만 서편에 보이는구나.
책상 위에는 부질없이 「육아」시만 덮어 놓고
봄가을 상로를 밟음에 슬픔을 참노라.

下略-

<회원당시(懷遠堂詩)>17) 중

첨지 이현산(李峴山)의 집 회원당 마루에 써준 작품이다.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회원(懷遠)이란 의미를 드러내고자 시선의 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적 공간을 형성하였다. 먼저 뜰로 시선을 옮기고 나무를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풍수지탄’¹⁸⁾을 읊고 자연스럽게 뜰이라는 공간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노래자(老萊子)’¹⁹⁾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그러다가 멀리 떠나가버린 부모님의 묘소를 안개 너머 서편으로 바라보다 그와 동시에 책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바로 한 편의 시 「육아」를 생각했다. 의미의 극대화를 피하고자 하듯 그 다음 구에 이 시를 배치한 것이다. 이는 시적 공간을 이동시켜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그에 맞는 고사를 무심하게 나열한 듯하지만, 그러한 배치가 결과적으로 순차적, 점층적 의미의 극대화를 이루어 냈다고 보여 진다.

다음은 장유(張維 1587~1638)의 작품이다.²⁰⁾

吾兄秉愷悌	나의 형 화려한 군자의 덕성 지녔는데
賦命一何奇	어찌 그리도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나요.
髻鬢喪慈母	어린시기에 ²¹⁾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서

17) 許筠, 『惺所覆頌藁』 2卷, 부록(附錄) 교산역기시(蛟山憶記詩).

18) 『孔子家語』(50) 2卷 8篇「致思」(9).

19) 『初學記』 17卷 「孝子列傳」.

20) 張維, 『溪谷先生集』 5卷.

欲廢蓼莪詩 「육아」시 읽지 않고 덮어두려 했지요.

下略-

<곡황형열지(哭黃兄悅之)> 중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부터는 『시경』 「육아」 편을 폐해버렸고 가난에 찌들며 벼슬에 나가기 위해 공부하느라 40년 동안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황형을 애도하는 글이다.

이 작품은 총 50구의 오언고시 가운데 첫 4구에 해당한다. 대개의 「육아」 편 인용 시가 그렇듯 이 작품 또한 네 번째 구의 대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마치 오언절구의 결구처럼 완결된 구조를 바라듯 말이다. 물론 「육아」라는 핵심 어구를 사용하여 그 구조를 완성했다. 이는 황열지의 어릴 적 덕성을 대변하는 소재로 「육아」라는 시구를 인용함에, 효를 본령으로 하는 핵심소재로서만이 아닌 인물의 성격을 대변하는 부수적인 관념으로도 적용을 하였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김수항(金壽恒 1629~1687)의 작품이다.

王化宮闈始	왕의 교화는 궁궐에서 시작하여
躬行孝弟先	효도와 공경을 몸소 실천하셨네.
樓傳花萼詠	누대는 화악(우애)을 읊어 전했고
詩廢蓼莪篇	『시경』은 「육아」 편을 읽지 않았네.

下略-

<효종대왕만사기이수(孝宗大王挽詞 其二首)> 중

효종대왕 만사 8수 중 둘째 수²²⁾이다. 原詩는 5언 율시로 여기에서는 수합 경미(首領頸尾) 句 가운데 수(首)구와 함(領)구를 들었다. 앞서 대개의 「육아」 편 인용 시가 대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인용 시의 거개(擧皆)가

21) 어린시기를 초친(髫髻)이라고 하는데 다막머리에 이를 갈 시기의 어린아이로 7, 8세 정도의 아이를 말한다.

22) 金壽恒, 『文谷集』 2卷.

고시(古詩) 또는 제문(祭文)에 해당하고 그 외는 잡저(雜著)·기(記)·소(疏)·자문(咨文)·표진(表箋) 등 산문에 인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²³⁾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3구 ‘육아(蓼莪)’의 대구어로 ‘화악(花萼)’을 쓴 이례적인 작품에 해당한다. 굳이 이례적이라 한 이유는 ‘육아’의 平仄 자체가 축성(蓼)과 평성(莪)의 성어이므로 대구어는 그 반대로 형성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즉, 평성(花) 축성(萼)으로 말이다. 이는 당시풍이 주류를 이루어 율격을 엄격히 지켰던 當代의 사조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작품은 이런 엄격한 율격에 우애와 효심이라는 의미의 고사를 정확히 대비하여 표현하였다.

다음은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작품이다.

上略

不孝未終晨夕養	아침저녁 끝까지 봉양 못한 불효자식
報恩空念蓼莪篇	은혜 갚을 길 없어 부질없이「육아」편만 외우네.
反哺林鳥多感慕	숲에 사는 새들도 감모하여 반포할 줄 아는데
謾令哀淚落襟邊	속절없이 슬픈 눈물만 옷깃을 적시는구나.

<임오유월십팔일 선고기일임오년(壬午六月十八日 先考忌日壬午年)> 중

1754년(甲戌 영조30) 되던 해 6월 사헌부감찰로 있을 때 부친상을 당했는데 9년이 지난 1762년(壬午 영조38)에 부친의 기일을 모시면서 느낀 서글픔을 읊은 작품이다.²⁴⁾

이 작품은 原詩가 7언 율시로 여기에는 경(脛)구와 미(尾)구를 들었다. 이 시 또한 경구 ‘육아(蓼莪)’의 대구어(對句語)로 ‘신석(晨夕)’을 대립시켜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효과를 노렸다. 내용상 古事의 대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육아의 의미를 더 돋보이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육아’를 ‘廢’했다는 일반적인 경우를 탈피하고 ‘육아’에

23) 고전번역원 db 참조.

24)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1卷.

‘念’字를 놓아 반어적인 의미를 부여한 점이 매우 인상 깊게 다가온다.

이상에서 조선 전·후기 「육아」 편을 인용한 작품을 선별적으로 살펴보았다.

2.2. 고산 문학 속 『시경』 「육아」

이 장에서는 조선 중기 시가 문학의 일인자로, 효와 관련된 내용의 문학 작품에 힘썼던 고산 윤선도의 문집 『고산유고』에 실린 한시 가운데 「육아」 편을 인용한 작품을 살펴보았다.

고산의 인생은 청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도록 임진왜란과 정묘, 병자호란 등의 국가적 혼란과 안으로는 사색당파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 속에서 파란만장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평생 효심을 잃지 않았다.

다음에서 「육아」 편을 인용하여 효심을 구현한 시 3수를 살펴보았다.

上略-

明朝往展伯母墓

墓傍三環悲百結

神道松楸長幾尺

顧我復我如昨日

-下略

다음날 아침엔 큰어머니 묘소에 가서 성묘하고

무덤가 세 번 돌아보니 온갖 슬픔이 엉기는구나.

무덤가에 심은 나무들은 몇 자나 자랐거늘

나를 돌보고 또 돌아봐주신 은혜는 어제 같구나.

<南歸記行>²⁵⁾중

이 작품은 윤선도가 1611년(광해 3) 11월, 서울에서 해남으로 돌아갈 때의 정회를 읊은 총 122구 854자의 칠언고시 가운데 13~16구에 해당한다. 22세에 양모(養母) 구씨(具氏)의 상을 당하고 이듬해 生母 安氏의 상까지 당한 뒤인지라 해남 가는 길은 더욱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위 작품은 무덤가에 심어진 나무와 세월의 무상(無常)함을 견준 뒤에 「육아」 편 4장 부(賦)를²⁶⁾ 통해 부모께서 낳고 길러주신 사실을 곡진하게 전하였다. 「육

25) 윤선도, 앞의 책, 48쪽.

26) “父兮生我 母兮鞠我 拊我畜我 長我育我 顧我復我 出入腹我 欲報之德 昊天罔極”. 『詩經』,

아」 편 경문에서는 生我·鞠我·拊我·畜我·長我·育我·腹我처럼 비슷한 문형을 반복하면서 한 편의 서사 구조를 띠는데 예컨대, 나를 낳고 기르시는 가운데(生我·鞠我), 다독이며 먹여 키우고(拊我·畜我) 그리고 자라나 발육함(長我·育我)에, 돌아보기도 하고 살피며(顧我復我) 또한 들고 날 때는 가슴에 안으시는 모습들(出入腹我)을 눈에 선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육아」시가 이렇듯 사실적 접근을 피했던 것처럼 고산 또한 경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아마도 부모의 내리사랑을 직접적이고도 사실적으로 그려내려 했던 듯하다. 이 지점에서 대개의 경우 ‘고복(顧復)’ 또는 ‘고차복(顧且復)’의 형태로 조어(措語)한 여타 시와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겠다.

다음은 1615년(광해군7) 신달에 남양 백부님의 구택(舊宅)에 갔다가 읊은 詩이다.

上略

顧復如將見	고복해 주시던 모습 빌 것 같은데
瞻依竟是虛	침의하려 해도 끝내 허사로세.
曾知泣近婦	울면 부녀자와 같은 줄 알면서도
不覺淚盈裾	나도 모르게 눈물이 옷을 적시는구나.

<乙卯臘月 往南陽伯父舊宅有感> 중

한시에 있어 대구는 문장성분의 배열에 매우 엄격하다. 이는 시의 운율적 효과와 의미의 전달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첫 번째 예로 든 시의 경우와 달리 고아복아(顧我復我)의 축자(縮字) 형태인 ‘고복(顧復)’을 인용하고 비슷한 형태의 어구로 대구를 형성하여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정서를 배가하였다. ‘고아복아’를 ‘고복’ 형태로 축자하여 인용한 예를 보면, 記·贊 등의 산문과 시·제문·축문·등의 韻文에 다양하게 보인다. 전두(前頭)에 언급했듯이 그래서 대구 형태도 많을 것으로 생각

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달리 ‘고복’의 대구는 많지 않다. 현전 한국문집총간을 참고해 보더라도 매우 드물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마저 이 작품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예컨대, 대구어(對句語)가 ‘구로(劬勞)’인 경우, 내용상 ‘고복(顧復)’처럼 부모를 그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동일하지만 형태상 “生我劬勞”의 “劬勞”는 “고아복아(顧我復我)”의 경우처럼 동일한 글자를 생략하고 조어(造語)한 ‘고복(顧復)’과는 달리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다르다. 대구어(對句語)가 훈지(薰麤)인 경우, “백씨취훈(伯氏吹薰) 중씨취지(仲氏吹麤)”처럼 비슷한 문형을 생략한 조어이지만 내용상 부모에 대한 사랑을 담은 ‘고복’과는 다른, 형제간의 우애를 다룬 어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에서 ‘고복’의 대구인 ‘침의(瞻依)’는 내용상 兩者 共히 결국 효로 귀결되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담고 있다. 아울러 형식상으로도 “미침비부(靡瞻匪父) 미의비모(靡依匪母)”에서처럼 비슷한 문형이나 동일한 어구의 생략을 통한 축자의 형태를 지향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절실하게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남다른 특질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윤선도 74세에 세 번째 유배지인三水에 도착하고 나서 지은 시 <생일날의 감회[以降日有感]>²⁷⁾이다.

當日爺孃鞠育時	당일 부모님이 이 몸을 낳아 길러 주실 때에
豈知伊蔚乃如斯	어찌 그만 이와 같이 잡초가 될 줄 아시리오
衰遲更念恩勤意	쇠잔해지니 더더욱 생각나는 은근의 뜻이여
不是囚山淚欲垂	눈물이 흐르려 함은 수산 때문이 아니지요

이 작품은 『시경』의 표현기법 6가지 賦·比·興·風·雅·頌 가운데 比의 기법을 사용한 「육아」 시 “蓼蓼者莪，匪莪伊蔚，哀哀父母，生我劬瘁”를 인용한 글이다.

위 고산의 첫 작품은 부(賦)의 기법을 사용하여 부모의 사랑을 눈에 보이듯

27) 윤선도, 앞의 책, 264쪽.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렸으며, 두 번째 작품은 흥(興)의 기법을 사용한 어구를 대가로 인용하여 화자의 부모에 대한 절절한 감정을 극대화시켰다.

한편 이 작품은 좋은 쭉(莪)과 대비되는 나쁜 쭉(蓼)을 배치하여 시적 화자의 현재 처지를 극명하게 비유하면서 이를 통해 자식을 잘 길러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을 부모를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다. 「육아」 편의 인용을 이처럼 정밀하게 구현하였으니 시인의 시적 내공이 제대로 드러난 작품이라 하겠다.

3. 東詩「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의 분석적 이해

3.1. 「문인폐육아」 내용과 시적 형상화

東詩 「문인폐육아」는 효에 관한 최초의 문헌상 기록 중의 하나인 『시경』 「육아」를 인용한 ‘폐육아’의 원전을 배경으로 東詩로 시적 형상화한 것이다. 작품 내용을 도입부, 전개부, 결말부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다.

1) 도입부(1韻 2句~3韻 6句)

周詩三百不可選	주시 삼백 편은 더 이상 가려 뽑을 것이 없는데,
況乃其間尤粹美	하물며 그 가운데 더욱 순미한 것이야 말할 것 없지.
講筵何事廢蓼莪	강론 하는 자리에서 왜 「육아」 편을 폐지한 것인가,
有怪王公門下士	왕공 문하의 선비들이여 의심스럽기만 하구나.
先生不忍讀此詩	선생이 차마 이 「육아」 시를 읽지 못하였으니,
弟子不忍陳其几	제자들도 차마 그 시를 책상에 펼치지 못하였네.

주(周)시 삼백 편은 『시경』을 가리키는 대체성인 시어로 사용했다. 순미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과경(葩經)’이라고 했다. 孔子는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²⁸⁾ 『시경』을 예찬하며 스승의 「육아」

28) 『論語』 「爲政」, “詩三百一言以蔽之曰思無邪。” 學民出版社, 1990, 112쪽.

편 강론을 문인들이 폐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괴이하다고 또 이의를 제기한다. 거듭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육아」속에 숨겨진 스승의 효성과 제자들의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뜻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다.

‘차마’라는 의미의 ‘인(忍)’자는 이 시의 주제에 대한 작가의 심리적 느낌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忍者에 대해 孟子는 “사람들은 모두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²⁹⁾고 했다. 또 천지는 만물을 냄으로써 마음을 삼으니, 태어난 물건들이 인하여 각기 천지의 생물지심(生物之心)을 얻어서 그것으로 마음을 삼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³⁰⁾고 주석했다. 이는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말미암음이니 천리의 자연함이요 진심임을 알게 하는 구라고 하겠다.

2) 전개부(4韻 8句~13韻 26句)

有魏高士有偉元	魏나라에 고아한 선비 왕위원이 있었는데,
我不識君嘗見史	나는 그대를 모르지만 일찍부터 역사책에 드러났다지.
郎罷曾爲司馬官	아버지께서 ³¹⁾ 일찍이 사마의 관원이 되어,
執爨來赴安東壘	창을 잡고서 안동의 보루로 달려왔다네.
東關屢師咎何在	동관의 싸움에서 패함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當日危言良有以	당일의 당당한 대답이 참으로 까닭이 있었다네.

『진서』 「왕부」 열전에 “위나라 고아한 선비 왕위원은 어린 나이에 우뚝한 지조를 숭상하여, 禮로써 처신하였다. 키는 8척 4촌이었고 생김새는 비범했으며 목소리는 맑고 분명하였다. 말과 얼굴빛은 정직했고 널리 배워 재능이 많았다.”³²⁾ 라고 소개했다. 작가 윤선도는 역사책을 읽다가 책 속에서 魏나라 高士

29)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孟子』 「公孫丑章句」, 上. 學民出版社, 1990, 263쪽.

30) “天地以生物爲心 而所生之物 因各得夫天地生物之心 以爲心 所以人皆有不忍人之心也.” 위 같은 쪽.

31) 아버지[郎罷] : 낭씨는 아버지를 칭하는 방언이다.

32) “袁少立操尙, 行己以禮, 身長八尺四寸, 容貌絕異, 音聲清亮, 辭氣雅正, 博學多能.” 『晉書』 앞의 책, 4쪽.

왕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나 『소학』을 읽고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왕부의 아버지가 진나라 사마소의 사마 직책을 맡아 나라를 위한 충성심을 다함을 보여주는 장이다. 원전 『진서』에 “위나라 때 아버지 의(儀)가 위엄이 있고 분명하며 바르고 곧아 문제(文帝)의 사마가 되어 동관에서 싸웠다[魏世父儀高亮雅直 爲文帝司馬 東關之役.]”고 했다. 위나라 가평 4년에 오나라 제갈각³³⁾이 위나라 군대를 동흥에서 패퇴시켰는데, 그 당시 왕부의 아버지 왕의가 위나라 안동장군 사마소의 사마가 되었다. 동쪽 관문에서 패전했을 때에 사마소는 여러 사람들에게 “요즈음의 일을 누가 그 잘못을 책임져야 하겠는가?”라고 물으니 儀가 대답하기를 “책임이 元帥에게 있지요” 라며 당당하게 대답하자 패전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만 참형을 당하게 됐다.

彼哉豺虎怒編鬚	저 시호 같은 사람이 수염을 꼬며 화를 내는 바람에,
如絃竟作途邊死	활줄 같은 분이 결국은 도로가에서 죽고 말았다네. ³⁴⁾
夫君哀痛久愈苦	그대의 애통함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쓰라려서,
神道松枝枯血淚	무덤가의 소나무 가지는 피눈물에 말라버렸다지.

위 시구는 왕부가 애통해하는 이유를 가장 잘 나타내었다. 당시 이성을 잃은 사마소의 성난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활줄처럼 곧은 아버지의 비명에 애통함을 못 이겨 이에 은거하여 제자들을 교수하며, 조정에서 세 번이나 부르고 郡國에서 일곱 번이나 불렀는데도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사마씨가 위나라를 찬탈하자, 왕부는 충신토록 일찍이 궁궐이 있는 서쪽을 향해 앉지 않아서, 썩나라에 신하 노릇 하지 않음을 보였다고 한다. 충성을 다했지만 참형(斬刑)을 당한 부친을 생각하며 흘린 그대의 피눈물에 무덤가의 소나무 가지마저

33) 제갈량(諸葛亮)의 형인 제갈근(諸葛瑾, 174~241, 三國時代 吳나라 낭야인(琅邪人))의 장남으로 吳나라 대장군이 되어 魏를 공격하다 실패하였고, 吳나라 宗室 손준(孫峻)에게 살해되었다.

34) 漢나라 순제(順帝) 말년에 경도(京都)에 전파된 동요(童謠)에, ‘활줄처럼 곧으면 길가에서 죽고 갈고리처럼 굽으면 공후(公侯)에 봉해진다.’는 말도 있지 않은개語曰, 直如絃, 死道邊. 曲如鉤, 封公侯.]라고 했다. 『後漢書』 「五行志1」.

말라버렸다³⁵⁾는 정말로 소나무가 말랐겠는가마는 그 정도로 슬퍼함이 깊음을 드러낸 시적 표현은 작가 윤선도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심이라고 하겠다.

將身處變得其宜	자신이 번고에 대처함이 그 마땅함을 얻었으니,
所可言者非一二	말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披經函丈覺後覺	경서 펼치고 스승이 후진들 일깨우자,
左右青衿談道義	좌우의 문인 ³⁶⁾ 들이 도의를 말하게 되었다네.
爲詩每到蓼莪篇	『시경』을 읽다 매양 「육아」 편에 이르게 되면,
三復悲吟淚濡紙	세 번 슬프게 읊조림에 눈물이 종이를 적서버렸다네.

왕부의 아버지 왕의는 그 당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함이 마땅했으나 사마소의 비정하고 이성을 모르는 행동으로 비통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는가? 스승이 「육아」 편을 펼치고서 문인들을 일깨우자 좌우에 있는 학생들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상의 의리 즉 효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스승이 이 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적이 없었고, 그런 효성의 지극함이 문인들을 감동시켰으니 “詩는 善한 마음을 흥기시키고 덕행과 정사를 관찰할 수 있으며, 여럿이 모여 화목(和睦)하게 지낼 수 있고 완곡한 표현으로 원망스러운 심경을 토로(吐露)할 수 있으며, 가까이는 아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君主를 섬기게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경』을 배우지 않느냐”³⁷⁾라고 했던 孔子의 말씀과 서로 통한다고 하겠다.

왕부는 『시경』을 읽다가 「육아」 편의 “슬프고 슬프구나, 부모여! [哀哀父母],

35) 『晉書』, 앞의 책, 3쪽. 『小學』, 앞의 책, 498쪽. “廬于墓側旦夕 常至墓所拜跪 攀柏悲號 涕淚着樹 樹爲之枯.”

36) 青衿은 『詩經』 「鄭風 子衿」에 “푸르디푸른 우리 님 옷깃,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에 걸려 [青靑子衿 悠悠我心].”라고 한 데서 나온 것으로, 선비나 太學의 유생이 입는 옷이다. 후세에 유생의 대명사로 흔히 사용되었다. 이 시는 세상이 혼란해지면 학교의 정사가 담여지지 않게 되는데 학교가 폐지됨을 풍자한 시다. 『詩經』, 앞의 책, 436쪽.

37) 『論語』 「陽貨」 “子曰小子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앞의 책, 1990, 348쪽.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셨네[生我劬勞]”라는 내용에 이르면 일찍이 세 번 반복하여 외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스승은 부모님이 그리워 울고 제자들은 스승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였으니 부모에 대한 효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함께 아름다운 미적 이미지로 승화시켰다.

諸生相戒莫助哀	여러 문인들 서로 스승의 슬픔 조장하지 말자하여,
多少摠衣摠廢是	몇 번을 옷자락 걷고 이 편 폐지하자 했는지.
非人深感豈有斯	사람이 깊은 감동 아니고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乃知夫君誠孝至	그대가 효성이 지극하였음을 진실로 알았다네.

위 시구는 스승 왕공의 이 같은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편을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스승의 슬픔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공경의 뜻으로 두 팔을 걷어 올리며 「육아」편을 읽지 말자고 한 것이니 문인들의 깊은 감동은 스승의 지극한 효성의 소치에서 발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 스승이 슬픈 느낌을 가질까 두려워 버리고 읽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며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들로 감화시킴을 알 수 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했던가. 이 시를 덮고 읽지 않는 이유가 잘 묘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구는 효뿐만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의 아름다운 이야기, 즉 스승을 존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권장하는 의미도 들어 있다.

3) 결말부(14韻 28句~19韻 38句)

詩之感人固可見	시가 사람 감화시키는 것 정말로 볼 수 있었고,
人之感人其如此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이와 같았다네.
詩經傳義小學書	『시경』에서 전하는 뜻 『소학』에 쓰여 있으니,
千載芳名響牙齒	천년토록 꽃다운 이름 입으로 전해질 것이라.
古來遭變知有幾	예로부터 변고를 만남이야 얼마나 많았겠으나,
善行高躅眞無比	선행의 숭고한 자취는 진정 견줄 데 없으리다.

“시가 사람을 감화시키고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킨다.” 는 이 말은 가장 아름다운 시적 이미지의 승화를 볼 수 있는 교훈이 담긴 시구로서 후배들에게 인륜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명구라 확신한다.

결말부에 『시경』에서 전하는 뜻이 『소학』에 쓰여 있다며 은연중에 『소학』의 중요성도 암시하는 듯하다. 『시경』에서 전하는 뜻을 주자(朱子)가 『소학』에 잘 풀이해 놓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은 후배들에 의해 덕스러운 향기가 영원토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라는 작가의 생각이 시로 표현되었다. 인간은 살면서 번고를 만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물은 트여있는 골로 흐른다는 말이 있듯이 일이란 반드시 正理로 돌아가는 법이다[事必歸正].

哀公之事淚爲零
敬公之心膝爲跪
仁言不如以身教
孝思從來能錫類
君莫道門人廢蓼莪
已學蓼莪詩中意

공의 일 슬피 여겨 눈물이 비 오듯 하고,
공의 마음 공경하매 무릎이 꿇어지는 구나.
어진 말도 몸으로 친히 가르치는 것만 못하니,
효자의 집안은 원래 효자가 끊이지 않는 법이라네.
그대는 문인들 「육아」를 폐지했다 말하지 말라,
이미 「육아」시 가운데 그 뜻을 배웠으니.

위 시구의 내용은 본인의 체험을 통해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오는 효심의 자연스런 표출일 것이다. 말로 가리키는 것보다 선생이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었으니 제자들이야 당연히 감동되어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率先垂範이 곧 孝子錫類라 할 수 있다. 『소학』 「선행」 제6 유변왈(柳玘曰) 주(注)에 “장손 부인이 임종할 때에 長幼들을 모아놓고 그 며느리의 효도를 칭찬하고, 후손들도 모두 그를 닦기를 바랐으니, 효자에게 착한 효자를 준다면 그 족속이 융성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³⁸⁾라고 했다.

마지막 19운 38구는 도입부 2운 4구에 “강론하며 어찌 「육아」 편을 폐했는가[講筵何事廢蓼莪].”라고 했는데, 마지막 제37~38구에 다시 “그대는 문인들

38) “長孫夫人 臨沒 聚長幼 稱其子婦之孝 願後子孫 皆克似之 孝子錫類 其族鬪隆盛 可知也.” 『小學』, 앞의 책, 500쪽.

「육아」를 폐했다 말을 마오[君莫道門人廢蓼莪], 이미 「육아」시 가운데 그 뜻을 배웠으니[已學蓼莪詩中意.]로 끝을 맺었다. 시작은 문인이 「육아」를 폐했다고 해놓고 결말에 문인들이 「육아」를 폐했다 말하지 말라고 함은 「육아」시로 인한 스승의 눈물 때문에 폐한 것이 아니요, 그로 인해 스승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문인들이 터득했기 때문이다.

3.2. 「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의 내용상·형식상 특징

앞서 고산의 東詩 「문인폐육아」의 내용을 분석한 바 이 작품의 내용상·형식상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라는 시제는, “『시경』을 읽다가 「육아」 편의 ‘불쌍하고 불쌍하신 부모님, 날 낳고 고생에 여위셨네.’라는 글귀에 이르러 일찍이 세 번을 반복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에 수업하는 문인들이 모두 「육아」 편을 덮고 읽지 않았다[讀詩 至哀哀父母生我劬勞 未嘗不三復流涕 門人受業者 並廢蓼莪之篇].”는 글 속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東詩의 운자(韻字)는 일반적으로 제목 속에 들어있는 글자 속에서 정하게 되어있다. 고산의 동시 필사본을 보면 다른 제목에는 모두 운자에 권점이 되어있다. 그런데 「문인폐육아」의 운자만은 필사본에 적힌 제목 아래에 약간 작은 글씨로 ‘미(美)(아름다울 미)’ 자를 첨가하여 권점(圈點)을 찍어 놓아 별도의 운으로 사용했다. 아마도 효행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아름다운 미(美)를 별도의 운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셋째, 이 작품은 19운 38구인 장단구(長短句)의 고체시로 東詩의 형식 18韻 36句의 분량을 넘었다. 고산의 주제의식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고사와 명구를 인용해가며 표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東詩의 길이가 고안된 것이라고 보인다.

넷째, 이 작품은 『시경』 「육아」 편을 인용하여 충과 효 그리고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5운 9구는 나라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아버지의 충성을 드러냈고, 8구 15운은 제자들의 스승을 존모하는 마음을 시각

적으로 드러내었다

다섯째, 첫 구부터 『시경』 「육아」로 시작하여 맨 마지막 18운 39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2운 3~4구는 문인들이 왜 「육아」 편을 폐했는지 의문을 제기 하면서 왕공의 부모에 대한 효심과 제자들의 스승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효의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곱째, 對句와 비유적인 기법 등을 사용했다. 예컨대, 3운 5~6구는 선생(先生)과 제자(弟子), 읽다(讀)와 펼치다(陳), 이(此)와 그(其), 시(詩)와 책상(几) 등등 대구의 기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7운 14구는 직유와 은유의 기법을 잘 적용하였으며 결말부에는 “그대는 문인이 육아를 폐했다고 말하지 말라[君莫言廢蓼莪]”고 하며 반어적 기법을 사용해 표현의 효과를 높였다.

여덟째, 『시경』 「육아」는 모두 6章으로 字數는 130자이다. 그런데 윤선도는 이 130자의 짧은 시에 부연하여 東詩 19운 38구 모두 267자의 長詩를 지어 아름다운 미적 이미지로 승화시켰다.

아홉째, 마지막 제37구는 7言이 아닌 8言句로 長短句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고산의 동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장단구의 사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고 聯數·字數도 일정하지 않아서 이른바 古詩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열 번째, 이 東詩는 여러 가지 효에 대한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풍수지탄(風樹之嘆), 서제막급(噬臍莫及), 자로부미(子路負米), 효자석류(孝子錫類), 효자애일(孝子愛日) 등의 많은 고사를 내포하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윤선도의 東詩 『문인폐육아』를 고찰하기에 앞서 조선 시대 『시경』

「육아」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조선 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그 시대를 살다간 문인들의 작품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육아」를 인용한 작품은 대부분 초상, 애도, 추모, 기일 등 어버이 잃은 슬픔에 젖어 눈물 흘리는 효자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시로 인식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육아」를 인용하되 어느 구에 배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작품의 주제의식을 극대화하거나 또는 그 인물의 성격을 대변하는 부수적인 관념으로도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율시의 경우, 수합경미(首領頸尾)의 구조로, 이 가운데 함(頷)구와 경(頸)구는 대구를 형성하게 되어있는데, 「육아」라는 구와 對句를 이룬 작품이 이례적으로 적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인용 작품이 산문에 해당되고 그나마 인용하고 있는 운문 또한 고시 장르여서 대구의 필요성이 없거나 율시라 해도 수(首)구 또는 미(尾)구에 배치하여 대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율시가 가지는 율격의 엄중함도 있지만 「육아」라는 성어(成語)의 평성과 축성이 축성(蓼)과 평성(莪)으로 이루어져 대구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살폈다.

이어서 조선 중기 시가 문학의 일인자인 고산 윤선도의 한시 가운데 「육아」편을 인용한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고산의 일생이 왜란 호란 등의 국가적 혼란과 어지러운 정치 현실 속에서도 평생 효심을 잃지 않았음을 상기하였다. 그리고 「육아」편을 인용하여 효심을 구현한 시 3수를 통해 고산은 『시경』 「육아」편이 가지는 서사적 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고복(顧復)」이라는 성어(成語)의 대구(對句)어로 조어(助語)의 형식적인 면과 古事의 내용적인 면을 적절히 조화시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절실하게 구현하였다는 사실과 아울러 原詩에서 사용된 표현기법 즉 흥(興)·비(比)·부(賦)의 기법도 차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고산유고』에 실려 있는 東詩 8수 가운데 하나인 「문인폐육아」를 도입부·전개부·결말부로 나누어 고산의 효 의식이 어떻게 시로 형상화되었는지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내용과 형식면에서 대략 10여 가지로 종합·정리 할

수 있었다.

‘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라는 詩題는 『시경』의 글귀에서 착안했고 동시의 분량이 보통 18韻 36句인 반면 이 작품은 19운 38구 267자의 長詩이다.

내용상, 5운 9구는 아버지의 충성을 드러냈고, 8구 15운은 스승을 향한 제자들의 존경심을 담아냈으며 특히 2운 3~4구는 문인들이 「육아」 편을 폐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효의 의미를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 서제막급(噬臍莫及), 자로부미(子路負米), 효자석류(孝子錫類), 효자애일(孝子愛日)등의 다양한 고사를 사용하였다.

형식상, 3운 5~6구는 對句의 기법을, 7운 14구는 직유와 은유의 기법을 적절히 적용하였고 결말부에는 반어적 기법을 사용해 표현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고산의 동시는 전반적으로 장단구를 자주 사용하여 연수(聯數)·자수(字數)도 일정하지 않은 고시(古詩) 형태와 근사(近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육아」 편을 중심으로 왕부의 진고(典故)까지 엮어 東詩 「문인폐육아」를 창작한 고산은 삶 속에서 “효”에 대한 감화를 강조하고 더 나아가 효행의 절실함과 실천 의지를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효의 의미에 깊이를 더 하려 하였다. 하여 윤선도의 「문인폐육아」는 東詩작품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 효행 문학사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國朝寶鑑』卷60, 英祖朝 4(9年(癸丑, 1733)).
- 金壽恒, 『文谷集』, 卷之二., 韓國文集叢刊, 133輯.
- 卞季良, 『春亭先生詩集』, 韓國文集叢刊 8輯.
- 徐居正, 『四佳詩集』, 卷之五, 韓國文集叢刊 10~11輯.
- 『小學』, 學民出版社, 1990.
- 『順菴集』, 韓國文集叢刊 解題.
- 『承政院日記』580冊, 英祖 卽位年 11月 29日 기사.
- 『新唐書』 「柳玘列傳」, 中華書局據 武英殿本校 刊.
- 申翊全, 『東江遺集』卷之二, 韓國文集叢刊 105輯.
-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卷之一, 229~230집.
- 『英祖實錄』卷71, 英祖 26年 3月 23日 丙寅 1번째 기사. 英祖 33年 9月 14日 癸卯 3번째 기사.
- 李民樹 譯解, 『禮記』, 惠園出版社, 1992, 「玉藻」第13篇.
- 尹善道 著, 金大鉉 譯, 『孤山遺稿』, 精微文化社, 2015.
- 張 維, 『溪谷先生集』, 卷之二五, 韓國文集叢刊 92輯.
- 丁若鏞, 『與猶堂全書』2集, 經集 18卷, 韓國文集叢刊 282輯.
- , 『詩經講義』
-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
- 朱熹 著, 『四書集註』, 中國 臺灣出版中心, 2016.
- 『晉書』【四部備要】史部, 臺灣中華書局, 中華民國 70年 6月, 列傳第54, 卷88.
- 李珣 著, 李民樹 옮김, 『擊蒙要訣』, 을유문화사, 1998.
- 『初學記』 권17 「孝子列傳」
- 韓嬰 撰, 林東錫 譯註, 『韓詩外傳』, 2009.
- 許筠, 『惺所覆瓿藁』, 卷之二, 韓國文集叢刊 74輯.
- 洪直弼, 『梅山集』, 卷之三, 韓國文集叢刊 295~296輯.
-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2. 연구논저

- 강미정, 「『시경』 <육아>와 관련된 영조의 심리적 특성과 문학 치료적 의의」, 『고전문학과교육』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
(UCI: G704-001589.2004.7.0060)
- _____,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시경(詩經) 인용 양상과 그 문학 치료적 의의」,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03.
- 김대현, 「녹우당 소장 한문학 자료의 검토」, 『해남 녹우당의 고문헌』, 태학사, 2003.
- _____, 『孤山遺稿』 卷6 所載 東詩 『冒雪訪孤山』考察, 『漢文學報』제18집, 2008, 376쪽.
(UCI: I410-ECN-0102-2009-820-019912406)
- _____, 「17세기 東詩 文學과 孤山 尹善道の『錢塘春望』」, 『漢文學報』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301쪽.
(UCI: I410-ECN-0102-2009-820-019911565)
- _____, 「고산 윤선도 漢詩의 자료학적 고찰」, 『古詩歌 研究』 제32집, 2009, 8~9쪽.
(UCI: I410-ECN-0102-2014-800-001493537)
- 박명희, 『호남한시의 분석적 이해』, 보고사, 2019.
- 박종우, 「고산 한시의 공간과 미적 특질」, 2015, 『民族文化』 第46輯, 2015.
(UCI: G704-001842.2015.46..008)
- 박준규, 『유배지에서 부르는 노래』, 중앙 M&B, 1997.
- 劉師培, 譯著 이영호·서혜준, 『中國經學史』, 성균관대학교출판사, 2020.
- 윤인숙, 「『小學』의 성격과 정치론, 그 적용」 - 조선전기 사림파의 정치이론과 적용 - 『사림』 제35호, 2010.
(UCI: G704-001587.2010.35.007)
- 진 원, 『소학』의 편찬 이유와 이론적 입장, 『한국학논집』제49집, 2012.
(UCI: G704-001843.2012..49.007)
- 孔穎達, 『詩經注疏』, 『十三經注疏』2, 臺灣, 臺北, 藍燈文化圖書公司. 436쪽.

| Abstract |

A Review on the Dongshi "Muninpyeyuga" by Gosan Yun Seondo

Lim, Kwi-nam

Chonnam Univ. Interdisciplinary Course for Translating Korean Texts in
Classical Chinese PH.D.Candidate

Dongshi (東詩) is called Gwacheshi (科體詩), Haengshi (行詩), Gongryeongshi (功令詩), or Donginshi (東人詩). It is the unique poem style that was originally created as an answer for the National Test [Gwageo] but soon used as a concept encompassing Gwacheshi (科體詩). This dissertation aims to examine Muninpyeyuga (門人廢蓼莪), a Dongshi by Gosan Yun Seondo (1587-1671), a representative writer of Shijo Shiga Dongshi literature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To this end, the researcher divided works that accepted 'Yuga' in 『Shigyeong (The Book of Odes, 詩經)』 published in the literature anthologies according to the times they were written such as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of Joseon Dynasty. And then the acceptance pattern of that period was reviewed. Next, it was reviewed how 'Yuga' in "Shigyeong" was implemented in Hanshi by Yun Seondo through the expression technique of 『Sikyung』 realized in his work and the antithesis technique of Hanshi. In particular, it was analyzed how the old story of "Pyeyuga" of

Wangbu reflected in his Dongshi was shaped as a poem in his Dongshi and confirmed the degree with the content analysis. Through this,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 were synthesized and summarized, and the significance of Yun Seon-do's works in the history of filial piety literature was demonstrated.

Key words : Dongshi (東詩), Gwacheshi (科體詩), Gasan Yun Seondo (尹善道), 『Muninpyeyuga (門人廢蓼莪)], 『Shigyeong (The Book of Odes, 詩經)], Pyeyuga (廢蓼莪).